진짜 교회III-진짜 만남

(눅9:28-36)

28. ○이 말씀을 하신 후 팔 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29.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30.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31.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32.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33.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34.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35.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36.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진짜 교회III-진짜 만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진짜 교회의 본질적 특성 세 번째로 '진짜 만남'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부르심, 두 번째가 그 부르심에 대한 진짜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 만남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습니다.
만남에 진짜와 가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만나면 만난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가짜 만남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나 자신이 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내가 혹시 누군가를 안 만나고 만났다고 거짓말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나 자신에게 이야기할 때 누구를 안 만났으면서도 나 자신에게 만났다고 거짓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회 안에서는 이 가짜 만남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100세 넘으신 방지일 목사님, 분명히 제가 만났습니다, 두 번 만나 뵈었습니다.
또,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학생 때 그것도 제가 찾아간 게 아니라 목사님이 학교로 찾아오셔서 개인적으로 만나 뵈었습니다.
김삼환 목사님, 개인적으로 만나 뵈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도 마찬가지에요, 학생 때에도 만났고, 목사가 된 뒤에도 개인적으로 만났고, 같이 식사도 했고 그분의 차를 타고 같이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만남의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런 깊이 있는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피상적이에요.
심지어는 황장엽 선생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분도 제가 세 번 만났습니다, 한 시간 내외의 짧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남이 피상적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피상적이라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만남들이 아니었더라도 만난 건 만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만나고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렇게 분명하고 딱 부러지게 만났다, 안 만났다가 구분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만났다고 했다가도 또 어떨 때는 내가 만났나? 했다가, 그러니까 오해의 만남이 있고 착각의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대상인 예수님과,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고 알려지는 천국과 하나님과의 만남은 보이지 않는 분과의 만남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만남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만나는 것이라서, 이 만남이 제가 황장엽 선생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만났다, 안 만났다,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고, 전부 만났다고 하지만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진짜 만났습니까?’ ‘진짜 만났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진짜 만났다고 얘기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인들이 누굽니까? 교인들이 모인 게 교회니까.
교인들이라는 것은 광야와 빈들에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진짜로 응답하는 자들입니다.
이 진짜로 응답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서 지셨던 나의 십자가를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뭡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교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깊이 있게 유지하면서 기어코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까지 이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목표이고 교회의 비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난 교인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까지 이끄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표이고 비전이고 그것이 교회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그 어떤 행사도 어떤 프로젝트도 그 어떤 프로그램도 이것을 대체하거나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서는 반(反)신앙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교회의 유일한 모토요, 하나의 목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난 교인들이 천국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목표라는 겁니다.

다들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만났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계신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예수님이 승천해 계시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면 당연히 승천해서 가계신 그 천국을 만났을 것이고,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아버지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천국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변화산 체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변화산 이야기 속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는 우리가 읽은 33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이게 바로 증거요, 기준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는 변화산 위입니다.
중동 땅 변화산 위라는 것은, 있기를 좋아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젖과 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 직장이 있는 것도 아름다운 가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곳이 있기에 좋아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접하면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영원히 지냅시다!'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 마음이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얘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므로 여기가 좋다고 하는 이 감정으로부터 논리적으로 진행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일은, 베드로는 산 아래의 모든 일을 다 잊어버립니다.
산 아래에서 모두 어떻게 지냈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한 자리 하는 출세를 비전으로 삼고 꿈꾸며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간절한 소망과 꿈과 비전을 다 망각해버립니다.
망각한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그것이 소원이 될 수가 없을 만큼 이미 완전히 행복하고 완전히 좋아집니다.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산 아래에는 동료 제자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식민지하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에 대한 열망과 소원과 간구가 다 없어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주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의 증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한번 대화해 보세요.
목사님의 비전과 꿈이 뭡니까?
교인 5000명 되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의 목사님은 예수님 못 만난 겁니다.
예배당 건축? 그러면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건 간에 여러분의 목사님을 승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난 분이십니다.
진짜 만남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황장엽 씨를 세 번 만났지만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만남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나라의 독립을 소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만난 게 아니죠, 예수님과의 만남이 깊이 있게 이루어져서 궁극적으로 승천하신 예수님까지 만났다면, 나라의 독립이라고 하는 문제를 더 이상 소원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 자체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아무 소원이 없어지는 것,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성취하고 싶은 것, 소망하는 것이 많아요, 예수님 못 만난 겁니다.
'주님! 사업 잘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인을 어떻게 지도하는 곳인가?
자, 돈이 없고 사업이 안돼서 걱정하며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인을 어떻게 지도합니까?
돈이 없는 지금, 사업이 안 되는 여기, 지금 여기, 여기는 항상 지금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 사업이 안 되는 지금의 이 상황, 이 상태에서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고백이 나오게끔 지도하는 겁니다.
돈 잘 벌고 사업 잘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가르칠 것이 아니라, 돈 없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돈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오게 하고, 돈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건강이 문제입니다, 부부가 싸웁니다,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직장이 안 생깁니다.
이 모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지금 여기서 교회가 교인을 인도하는 방법은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 변화산상에서의 모습을 만나게 함으로써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내 몸에 말뚝이 박혀있는 것과 같은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여기가 그대로 좋사오니 그대로 머뭅시다!'
승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변화산 위가 좋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좋습니다.
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내 마음의 좋음과 행복과 기쁨은 이 지상에서 주어지고 있는 상황은 영향을 미칠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을 행복의 궁극점으로 끌고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인을 인도할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나서 교인 된 사람들에게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끌고 가는 것이지, 이 세상의 일에 전념하면서 이 세상의 일이 해결될 날을 비전으로 삼고 가도록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행사든 프로그램이든 계획이든 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날 교인으로 하여금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까지 끌고 가는 것을 제쳐 둔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 프로젝트, 승천하신 예수님을 향해 가도록 하는 목표를 가리는 교회 행사와 계획들은 다 반(反)신앙적인 것들이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도록 비전을 열어주지 못하는 그런 교회는 반(反)그리스도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납니까?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고 땅에 장사되십니다.
땅에 장사된다는 것은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같이 부활하게 되고 같이 승천합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날마다 주님께서 져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만나

면서 주님이 가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길을 마음에서 소망하고 비전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길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은총인 것이지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만 있으면 반드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원칙이나 원리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인격적 약속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승천하신 주님께로 도달해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은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결정하신 은총.

그러니까 기다림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계적이거나 주문이나 주술 같은 것이라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걷겠다고 결심하자마자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때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기다려야 됩니다, 약속을 믿고.
이 기다림이 성령님이 오심을 통하여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서 이제 천국을 느끼게 되요,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몸으로 이루어져서 살고 있던 이 세상, 몸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요에 묶여서 내 마음이 전전긍긍하며 살다가, 광야, 삶이 끝난 곳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의도를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승천하신 주님을 만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이전에 몸을 통하여 세상을 살 듯이 성령님을 통하여 천국을 느끼게 됩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보고 있듯이.

이렇게 해서 천국을 만나고 승천하신 주님과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아버지를 성령님께서 보시면서 우리가 이 육체의 눈으로 단풍이 드는 것을 볼 때 마음으로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처럼, 성령이 하나님을 보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풍기시는 느낌을 내 마음으로 느끼게끔 해줍니다.

이게 진짜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날 때, 오늘 본문에 보니 베드로가 초막을 짓자는 제안에 대해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의논하는 천상의 회의의 현장이 보여 집니다.
그리고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무슨 얘깁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논의된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실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다시금 산 밑으로 내려가는, 다음번에 말씀드리게 될 진짜 파송에 대한 이야기, 진짜 파송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 진짜 만남이 있고서야만 진짜 파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만남!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승천하신 주님을 비전으로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야만 우리는 천국과 하나님아버지와 승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이렇게 만나게 될 때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기적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놓인 여기가 어떤 상황입니까?
그 상황을 개선하려 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다리며 승천하신 주님을 만날 것을 소원하세요!
사업 잘되는 것, 자식 잘되는 것, 건강 회복하는 것을 소원할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주님을 만날 것을 소원하시면, 아파도 없어도 망했어도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기적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문제 간단하잖아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복잡한 문제가 주어질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바르게 진짜 응답한 교인이라면 진짜 만남을 위하여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지금 내가 놓여 있는 여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교인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만나면서 장사지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문제덩어리인 지금 여기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좋은 곳으로 느껴질 수 있는 기적 같은 은총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